



■ 광주·전남 온실가스 감축 대상 기업

광주 (12곳)	대우신소재, 동원제지, 광주시, 금호타이어,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한국시멘트, 기자자동차, 매일유업, 삼성전자, LG이노텍, 오비맥주, 일신방직 등
전남 (36곳)	대한세라믹스, 금호산업 고속사업부, 대한시멘트, 대한페이퍼텍, 리파즈석 고보드시스템, 보위터한라제지, 예보닉카본블랙코리아, 오피씨울존전력, 에스엔에스, 케이씨, 케이피엑스화인케이칼, 콜럼비안케이미칼코리아, 한국바스프, 현대삼호중공업, LG엠에이, 엘지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석유화학, 금호폴리켄, 금호피앤비화학, 남양유업, 남해화학, 삼남석유화학, 세방전자, 여수열병합발전, 여천NCC,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 제일모직,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스코켄텍, 한국남동발전, 한화케미칼, 현대하이스코, 호남석유화학, 휴켄스, GS칼텍스 등

■ F1경주장 땅값, J프로젝트 발목잡나

땅주인 농어촌공 “제값 받겠다”  
민간개발 사업자 “비싸면 포기”

F1 경주장 땅값 폭등으로 전남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핵심 현안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 도시(J프로젝트)의 장밋빛 청사진은 간데없고 잿빛 불안감만 커져가고 있다는 게 민간사업자들의 분위기다.

무엇보다 F1 경주장 땅값이 인근의 J프로젝트 부지인 삼호·구성·부동지구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발사업사 사이에서는 땅값 부담으로 인한 '전면 수정 불가피론'이나 '사업포기론'까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 잿빛으로 물드나 = J프로젝트는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전남도가 추진중인 핵심 현안이다. 2025년까지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대 49.0km(148만평)에 2조 2800억원을 투입, F1 경주장과 워터파크, 골프클러스터, marina 시설 등을 조성하고 4만9000명(2만세대)이 거주하는 관광레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전남도의 야심찬 구상이다.

큰 비용,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면 실제 투입 금액은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개발사업자들의 입장이다.

예컨대 공유수면매립권 매입 비용을 2만5000원으로 잡을 경우 조성 공사비용으로 3.3㎡당 2만원이 추가되고 사업부지의 30%를 기부채납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상승효과가 3.3㎡당 7500원에 이른다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개발이익환수에상당액을 3.3㎡당 약 1만원으로 감안하게 되면 실제 3.3㎡에 들어가는 취득 원가는 6만2500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현재로도 인근 농지가격(6만원)보다 비싼 상황인데 부지매입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전남개발공사가 맡은 삼호지구도 F1경주장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사들여야 하는 점에서 민간 투자 유치에 고사하고 높게 오른 땅값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온실가스 감축노력, 생산량 증가로 ‘허사’

■ 탄소배출권 3일간 모의거래 해보니

기아차 1억5584만원 손실·신세계 4960만원 이익  
기업들 “탄소 배출 못 줄이면 재정 손실 직접체감”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0%를 감축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주요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산업용 전력 사용량의 53.7%를 차지하는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산단 내 전체 가로등을 LED 방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기아차 광주공장이 올 1분기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2만6000t 초과해 5027t(1억5584만원 상당)의 탄소배출권을 구입했다. 반면 광주신세계는 목표량보다 1600t을 줄여 496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지난달 22~24일 3일간 진행된 광주그린엑션 사업 1분기 탄소배출권 모의 거래 결과다.

광주그린엑션 사업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과 유통업체·대형건물 등이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하고 탄소배출권 모의 거래를 실시하는 광주시의 특수시책이다.

이번 거래에는 기아차 광주공장·금호타이어 등 기업체 21곳과 광주신세계 등 유통업체 14곳, 광주은행 등 대형건물 18곳, 대학 12곳 등 총 65개 기관·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거래에서는 3일동안 149회에 걸쳐 1만1640t의 탄소배출권이 거래, 3억6000만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됐다.

특히 올해 1분기는 목표감축보다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는 기존 배출량(2008년 100만3862t)보다 4% 감축, 25만5644t의 탄소배출을 목표로 했는데 이보다 10만1902t을 초과해 35만2466t이 배출됐다.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이 t당 3만1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31억 5896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이다.

분야별로는 유통과 대형건물은 목표보다 줄었으나, 기업들은 생산 설비 및 연료교체 등 에너지절약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증가 때문

에 감축하지 못했다.

지난해 탄소배출권거래는 962회에 걸쳐 5만9413t의 CO<sub>2</sub>가 거래됐고 거래금액은 22억9000원으로, 17개 기관은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3억 82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거뒀다. 기업체의 경우 탄소배출권거래

참여도가 56.8%로 높았고 경제이익도 93%를 차지해 기후변화라는 위기가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회라는 경험을 습득했다는 평가다.

모의거래에 참여한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감축 목표가 할당되면 그만큼 배출을 줄이던 것이

아니나고 단순히 생각했는데 직접 거래를 해보니 이를 채우지 못하면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야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탄소 배출이 재정과 직접 연계돼 실감이 나고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친환경이 돈”... 벌써 15만 세대 가입

■ 전국 최초 광주시 탄소은행제 시행 3년

작년 온실가스 1만5305t 감축... 8억800만원 적립

전국 최초로 광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소은행제도’가 녹색창조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각 세대에서 자발적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일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탄소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로, 올 상반기 이미 15만 세대가 가입하는 등 가입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광주시는 14일 “탄소은행제도가 국내외 매체에 소개되고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해 말 6만248가구에 불과했던 가입자 수가 올 상반기에만 9만 세대가 늘어 전체 세대 수 54만 세대의 27.78%에 해당하는 15만 세대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치 7만 세대를 2만 세대 초과한 것으로, 광주시는 오는 10월11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2011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 상회의”를 기점으로 20만 세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광주시와 광주은행이 협약을 맺고 시범운영에 나선 탄소은행은 광주은행의 ‘탄소 그린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를 최근 2년간에 비해 감축할 경우 이를 포인트로 적립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에는 6만248가구가 참여해 그 중 74%인 4만4746가구가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해 8억8000만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적립했으며 55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식재한 효

과와 맞먹는 온실가스 1만5305t을 감축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가정에서 멀티탭 사용, 안 쓰는 전기플러그 뽑기, 가스 줄이고 수도물 아껴쓰기 등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에너지 절약이 가능해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탄소은행에 참여를 희망하는 세대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or.kr)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거나 가까운 구청, 동사무소, 광주은행 지점을 방문해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가입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문화체육관광부 Korea Be Inspired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gangjinfes.or.kr 1688-1305

# 제39회 강진 청자 축제

흥, 불, 레코 인강...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축제'

사색(四色)청자를 빚다!  
맛(味) 미(美) 흥(興) 락(樂) 4개의 테마존  
MBC개막쇼, 청자공모전 등 풍부한 프로그램의 축제가 환상적으로 펼쳐집니다.

테마 1. 흥, 불, 그리고 인강 남도의 맛(味)을 청자에 담는다.  
테마 2. 첨단 멀티미디어 축제로 청자의 미(美)를 함께한다.  
테마 3. 풍부한 체험으로 축제의 재미(興)를 느낀다.  
테마 4. 다양한 이벤트로 축제의 즐거움(樂)을 함께한다.

제39회 강진청자축제  
The 39th Gangjin Celadon Festival  
전라남도 강진군 고려청자도요지 일원

주최: 강진군  
주관: 강진군청토목재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한국도요공사, KBS, MBC, (주)보세 (주)진보, (주)일화, 농협중앙회, 광주은행

2011. 7. 30(토)~8. 7(일)/9일간

제4회 대한민국 정남진물축제

2011. 7. 29(금) ~ 8. 4(목) 7일간  
전남 장흥읍 탐진강 및 장흥읍 생태공원 일원

전국인 대상 모집중! 친환경 행사장, 캠핑 페스티벌

동! 3가지 테마의 '전국 단위 경연대회'

- ★ 전국 어린이도요대항대회 (한국모험협회 주관)
- ★ 국내 라이보볼링 경연대회
- ★ 전국 대학생 유자컵 강타 페스티벌

축제는 물결... 황금빛 여름!

7일간 펼쳐지는 '비애비애콘서트'

- ★ 생명의 물 합주
- ★ 대형 특급 가수 축하공연
- ★ KBS 빛고을 차차차
- ★ 7080 국내 정상급 가수 공연 등

시원하고 파릇파릇 물벼락 파티가 쏟아진다!  
38여가구에 이르는 신나는 체험!

- ★ 물속구, 아쿠아슬라이드, 열기구체험, 투망체험, 부르고앙, 동력산타기, 아슬아슬 징검다리, 강변나루보트, 수상사냥터, 맨손 물고기잡기대회 등

더 이상의 축제는 없다!  
다채로운 이색체험

- ★ 수상 라이보볼링, 세미노드화양대회, 길거리 씨름대회, 개미기 체험, 송어체험, 편백수 우드랜드 체험(편백수공예)

물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맛있는 소문, 즐거운 먹거리!

- ★ 초목수박 익신초리 경연대회, 향토음식전, 다문화체험 음식이벤트

안전재전화: 061-860-0828~0830  
www.jhwater.kr